

# 『新纂辟瘟方』의 瘟疫 인식 및 辟疫書로서의 의의에 대한 고찰

- 『東醫寶鑑·瘟疫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韓國韓醫學研究院 정보개발운영그룹<sup>1</sup>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2</sup>  
金尙賢<sup>1, 2</sup> · 白裕相<sup>2</sup> · 丁彰炫<sup>2</sup> · 張祐彰<sup>2</sup>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pidemic febrile  
disease[瘟疫] in the *Sinchanbyeokonbang*(新纂辟瘟方)  
and its significance as prevention contents  
- Based on comparison with *Dong-uibogam*(東醫寶鑑) -

Kim Sang-hyun<sup>1, 2</sup> · Baik You-sang<sup>2</sup> · Jeong Chang-hyun<sup>2</sup> · Jang Woo-Chang<sup>2</sup> \*

<sup>1</sup>Informatics Development & Management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up>2</sup>Dep.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Based o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listed formulas of the *Sinchanbyeokonbang*(新纂辟瘟方), it is clear that it has been published based on the *Dong-uibogam*(東醫寶鑑). This study was carried out under this premise, with focus on the differences between *Sinchanbyeokonbang* and the epidemic febrile disease[瘟疫] chapter of the *Dong-uibogam*.

In short, *Sinchanbyeokonbang* reflected a changed view on the epidemic febrile disease, improving its professionalism by supplementing formulas from previous texts and folk prescriptions. At the same time, it improved clinical practicality rather than medical, academic facts, which shows its objective in improving public health and medicine.

**Key Words** : *Sinchanbyeokonbang*(新纂辟瘟方), *Dong-uibogam*(東醫寶鑑), epidemic febrile disease [瘟疫]

## I. 序 論

한국 韓醫學에는 四象醫學이 있다면 중국 中醫學에는 溫病學이 있다고 할 정도로 韓醫學과 中醫學의

차별점으로서 溫病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한의학에서도 온열병에 대한 인식과 그 의론이 담긴 텍스트가 계속 존재해왔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學派를 이룬 溫病學派와는 달리 한국 溫病學이라는 분야는 기존의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때문에, 明清時代를 거쳐 형성된 중국 溫病學派의 學說들을 연구해보면서 더욱 한국 韓醫學에서 溫熱性 질환에 대한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jangchang@khu.ac.kr Tel : (02) 961-0735  
접수일(2013년 10월24일), 수정일(2013년 11월13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인식 및 그 흐름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 대상을 정하기에 앞서 溫熱病의 범주를 어떻게 한정지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 溫病學에서 溫病의 개념은 ‘溫邪로 인해 發熱을 主症으로 하고 熱象이 편중하여 쉽게 燥로 化하여 陰을 傷하는 多種의 急性外感熱病’으로 정의된다. 溫邪로 인한 發熱, 傷陰 등의 특징을 중심으로 『東醫寶鑑』에서 관련 항목을 찾아보자면 暑門, 燥門, 火門, 瘟疫門 등이 있다. 이 중 외인성 질환이 주로 기술되어있는 항목을 꼽자면 暑門, 瘟疫門으로 좁힐 수 있다. 또한 急性 혹은 傳染性을 띤 질환은 주로 瘟疫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을 前後로 하여 몇 종류의 온역서적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 韓醫學의 瘟疫 연구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이 자료들이 좋은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 이전에는 『醫方類聚』를 비롯한 여러 醫書들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簡易辟瘟方』, 『分門瘟疫易解方』과 같은 온역 전문서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東醫寶鑑·瘟疫門』에 반영되어 있다. 『東醫寶鑑·瘟疫門』에서는 瘟疫의 원인, 범주, 형증, 맥, 치법, 예방, 침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東醫寶鑑』 간행 이후 전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新纂辟瘟方』, 『辟瘟神方』<sup>1)</sup>이 편찬되는데,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瘟疫門』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病因, 治法 등에서 보다 세분화된 편제를 보인다. 그 후로 간행된 『辟瘟新方』은 『新纂辟瘟方』의 체제를 따르고 그 내용 또한 『新纂辟瘟方』을 비롯한 기존의 辟瘟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적인 흐름을 볼 때 기존의 瘟疫 이론을 집대성한 『東醫寶鑑·瘟疫門』과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한 『新纂辟瘟方』<sup>2)</sup>이 한국 韓醫學의 瘟疫 부문

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로서 陳의 ‘劉完素의 火熱論이 許浚의 瘟疫治療法에 미친 영향’<sup>3)</sup>에 두 텍스트를 함께 연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劉完素의 火熱論이 許浚의 瘟疫治療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을 분석한 것이며, 두 텍스트 사이의 비교는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다. 또 조의 ‘16~17세기 조선의 辟瘟醫書를 통해 살펴본 瘟疫學의 특징’<sup>4)</sup>에서는 조선시대 辟瘟書를 개괄하며 중국 온병학과 한국 온역학의 차이를 조명하였는데, 이는 텍스트 각각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시대선상에서의 총괄적인 분석으로 본 논문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온역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 이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체계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II. 本 論

### 1. 『東醫寶鑑』을 계승한 瘟疫專門書, 『新纂辟瘟方』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瘟疫門』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편제, 내용만 살펴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1]<sup>5)</sup>에서 보듯이 『新纂辟瘟方』의 편제가 더 세분화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일개는 『東醫寶鑑·瘟疫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 중에서 ‘火運之歲多疫癘’, ‘運氣之變成疫’, ‘瘟疫表證宜汗’, ‘瘟疫半表裏證宜和解’, ‘瘟疫裏證宜下’, ‘瘟疫發黃’, ‘禁忌’를 제외하면 모두 『東醫寶鑑·瘟疫門』의 내용을 가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의원 간행본의 영인본(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을 기준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3) 陳柱杓, 劉完素의 火熱論이 許浚의 瘟疫治療法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辟瘟醫書를 통해 살펴본 瘟疫學의 특징. 한국역사학회지, 2006, 19(2).  
5) [표 1]의 편제 순서는 新纂辟瘟方의 순서가 기준이며 東醫寶鑑·瘟疫門의 편제는 비교를 위해 편의상 순서를 재배치하였다.

1) 辟瘟神方은 疫病 중에서도 특히 ‘疹’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瘟疫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따로 그 특수성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2) 新纂辟瘟方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광혜군 5년 내의원 간행본(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과 필사본(허준박물관 소장)이 전한다.(한국한의학연구원, 허준의학전서6, 신찬벽온방 해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9, p.3.)

그 중 ‘運氣之變成疫’와 ‘瘟疫發黃’은 각각 『東醫寶鑑·天地運氣』와 『東醫寶鑑·黃疸門』에서 발췌한 내용이고<sup>6)</sup> ‘瘟疫表證宜汗’, ‘瘟疫半表裏證宜和解’, ‘瘟疫裏證宜下’에 기술된 처방이 대부분 『東醫寶鑑·瘟疫門』에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을 바탕으로 쓰인 瘟疫書임을 알 수 있다.

【표 1】『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의 편제 비교

『東醫寶鑑·瘟疫門』	『新纂辟瘟方』
瘟疫之因	火運之歲多疫癘 運氣之變成疫 四時失節亦爲疫 疫雜鬼厲 瘟疫各有所因 瘟疫有溫有熱
脈法 瘟疫形證	瘟疫脈 瘟疫形證
瘟疫治法	瘟疫治法 瘟疫表證宜汗 瘟疫半表裏證宜和解 瘟疫裏證宜下 瘟疫發黃 瘟疫通治
大頭瘟證 大頭瘟治法 瘴疫	大頭瘟 瘴疫
禳法 辟瘟疫豫防法 不傳染法 鍼法 瘟疫熱病不治症 單方	瘟疫禳法 瘟疫辟法 不傳染法 鍼法 不治症 禁忌

또한 『新纂辟瘟方』에는 중복항목을 제거했을 경우 총 55개의 처방과 30가지의 단방 및 치법이 기술되는데, 그 중 9개 처방과 12가지 단방 및 치법을 제외하면 모두 『東醫寶鑑·瘟疫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新纂辟瘟方』이 『東醫寶鑑』, 특히 〈瘟疫門〉을 기반으로 출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표 2】『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에서 언급된 처방, 단방, 치법 비교

	공통 처방, 단방, 치료방법	다른 처방, 단방, 치료방법
東醫寶鑑·瘟疫門	葛根解肌湯, 調中湯, 蒼朮白虎湯, 甘桔湯, 加味敗毒散, 大柴胡湯, 九味羌活湯, 十神湯, 聖散子, 香蘇散, 十味芍蘇散, 柴胡升麻湯, 清熱解肌湯, 小柴胡湯, 清熱解毒散, 茵陳丸, 黑奴丸, 五瘟丹, 如意丹, 人中黃丸, 神授太乙散, 普濟消毒飲子, 既濟解毒湯, 芩連消毒飲, 牛蒡芩連湯, 漏蘆散, 二黃湯, 殭黃丸, 加味殭黃丸, 二聖救苦丸, 清涼救苦散, 通氣散, 升麻蒼朮湯, 三仙湯, 太無神朮散, 加味柴胡湯, 屠蘇飲, 老君神明散, 務成子螢火丸, 太倉公辟瘟丹, 李子建殺鬼元, 神聖辟瘟丹, 七物虎頭元, 太乙流金散, 蘇合香元, 雄黃丸 (46方)	(升麻葛根湯), 荊防敗毒散, (芎芷香蘇散), 雙解散, 清熱解毒散, 加味敗毒散, 托裏消毒飲, 益元散, 涼膈散, 正氣散, 七物赤散, 宣聖辟瘟丹 (12方) 生葛根汁, 苦參, 青黛, 蛇莓, 生藕汁, 蟾蜍, 人中黃, 雄狐尿, 獾肉, 白粳米 (10가지)
新纂辟瘟方	桃葉湯, 葱白粥, 芥菜子法, 人糞汁, 猪糞汁, 臘雪水, 地龍汁, 藍葉汁, 水中細苔, 竹瀝, 五辛(蒜), 溫蕪菁汁, 朱砂, 蒼朮, 赤馬蹄, 臘月鼠, 赤小豆, 嚙法 (18가지)	五積散, 五苓散, 竹葉石膏湯, 犀角地黃湯, 九味清心元, 三黃石膏湯, 茵陳瀉黃湯, 退黃散, 瓜蒂散 (9方) 月經水, 菘豆粥, 虎頭, 雄黃, 菖蒲酒, 安息香, 爆竹, 塚上土, 艾人, 千金木, 水漬法, 蒸衣法 (12가지)

렇지만 許浚이 『東醫寶鑑』의 집필을 마친 후 疫病의 유행 때문에 왕명을 받아 『新纂辟瘟方』을 간행하면서 볼륨이 큰 『東醫寶鑑』에서 『東醫寶鑑·瘟疫門』만 발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편제를 재수립하고 내용에 가감을 한 것은 분명 학술 및 실용 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新纂辟瘟方』이 『東醫寶鑑·瘟疫門』과 차이 나는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 2. 『新纂辟瘟方』의 瘟疫 病因 인식

『新纂辟瘟方』의 가장 첫 기사인 ‘火運之歲多疫癘’

6) 許浚 지음,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948, 1420.

는 『東醫寶鑑』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서, 許浚이 『黃帝內經』을 참고하여 기술한 부분으로 추측된다.<sup>7)</sup>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五運之中, 戊癸屬火. 火有君火相火, 君火爲少陰, 相火爲少陽, 少陰司天, 天下疵疫, 少陽司天, 疫癘大行. 丑未之歲, 少陰加臨則民病瘟疫盛行, 遠近咸若. 火運之歲, 熒惑(星名)光明, 天下疫癘. [內經]<sup>8)</sup>

五運 중에 戊年과 癸年은 火에 속한다. 火에는 君火와 相火가 있는데 君火는 少陰이 되고 相火는 少陽이 되니, 少陰이 司天인 해에는 천하에 전염병이 돌고, 少陽이 司天인 해에는 疫癘가 크게 유행한다. 丑未의 해에 (客氣인) 少陰이 (主氣인 少陰에) 加臨하면 사람들이 자주 앓는 병으로 瘟疫이 성행하여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다 같이 앓게 된다. 火運의 해에 熒惑星이 밝게 비추면 천하에 疫癘가 돈다. [내경]

이 기사에서 언급한 바로는 戊癸年, 少陰 또는 少陽이 司天인 해, 丑未年 少陰이 加臨하는 시기, 火運의 해에 熒惑星이 빛날 때에 전염병[疫癘]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黃帝內經』에서 疫病을 언급한 시기가 이 기사에서 언급한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sup>9)</sup> 따라서 이 기사는 『黃帝內經』에서 疫病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발췌했다기보다는, 허준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黃帝內經』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許浚의 의도 중 가장 큰 것은 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運氣에서 ‘火’와 疫病과의 상관성이다. 大運이 火에 속하는 戊癸年을 언급한 것이나 少陰 또는 少陽이 司天인 해(子午年, 寅申年)을 언급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또한 丑未年 客氣인 少陰이 加臨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도 太陰이 司天인 해이지만 二之氣에 主氣가 少陰(君火)인 시기에 客氣인 少陰(君火)이 더해져서 ‘火’의 중첩으로 인해 疫病이 성행할 수 있음을 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疫病이 壬子年 가을부터 유행했었고 許浚이 어명을 받아 『新纂辟瘟方』을 출간하던 시기가 癸丑年(1613) 2월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유행하던 疫病이 少陰司天인 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과 동시에 運氣로 미루어보아 곧 다가올 시기에 疫病의 유행을 대비코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sup>10)</sup>

두 번째 기사인 ‘運氣之變成疫’도 運氣와 疫病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夫五運六氣, 乃天地陰陽運行升降之常道也. 五運流行, 有大過不及之異, 六氣升降,

7) 추측된다고 언급한 이유는 ‘火運之歲多疫癘’의 기사가 黃帝內經의 運氣篇에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 氣交變大論 등을 참조하면 ‘火運之歲多疫癘’ 기사의 내용이 과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기사 말미에 ‘內經’을 덧붙였을 것이다.

8)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25.

9) 예를 들어 六元正紀大論에서 太陽이 司天인 시기에는 전염병이 돌고 온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3. “太陽司天之政, …… 民乃厲, 溫病乃作”)

10) 新纂辟瘟方 序文에 따르면 光海君이 당시 유행하던 疫病의 치료를 위해 기존의 簡易辟瘟方을 재간행하여 각도에 반포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許浚에게 명하여 새로이 撰定하도록 하였다.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15, 116. “醫局舊有簡易辟瘟方 命印累百本 頒布各道 而尙慮其粗率 乃於筵中 上語及民災愍然不怡 大臣及該官請 令內局老醫 博採諸方 更論中外 上遂命陽平君 (臣)許浚撰定 以進俾廣其傳”) 光海君日記에 따르면 『簡易辟瘟方』을 간행토록 한 때가 壬子年(1612) 12월 22일이다. (국사편찬위원회. 光海君日記. 61卷, 4年.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oa\\_10412022\\_001&mTree=0&inResult=0&indextype=1](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oa_10412022_001&mTree=0&inResult=0&indextype=1) “壬子十二月二十二日辛亥 政院啓曰, 目今癘疫熾發, 非但咸鏡江原兩道, 如京城及諸道, 已爲傳染, 處處皆然. 將來之患, 亦不止此, 不可不預爲之備. 辟瘟方一書, 張數不多, 工役易就, 速令校書館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何如. 傳曰, 允.”) 따라서 許浚이 新纂辟瘟方을 집필하던 시기가 壬子年末에서 癸丑年初임을 알 수 있다. 少陰이 加臨하는 二之氣의 시기가 春分 이후임을 생각해보면 新纂辟瘟方은 그 시기 직전에 집필이 완료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火運之歲多疫癘’을 미루어 볼 때 新纂辟瘟方의 집필의도에 예방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론해본다.

有逆從勝復之差. 凡不合於德化政令者, 則爲變青, 皆能病人, 故謂之時氣也. [三因] ○一歲之中, 病證相同者, 五運六氣所爲之病也. [綱目]<sup>11)</sup>

무릇 五運과 六氣는 天地의 陰陽이 運行하고 升降하는 일정한 道이다. 五運이 流行함에는 太過, 不及의 차이가 있고, 六氣가 升降함에는 逆從과 勝復의 차이가 있다. 무릇 德化政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재앙을 일으켜 모두 사람을 병들게 하니, 그러므로 이를 시기(時氣)라고 하였다. [삼인] ○ 일 년 중에 病證이 서로 같은 것은 五運, 六氣가 일으킨 병이다. [강목]

기사의 전반부인 위의 내용은 『東醫寶鑑·瘟疫門』에 보이지 않고, 『東醫寶鑑·天地運氣』에서 인용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병의 원인을 運氣로 인식하면서 앞선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기후와 같은 외부 요인이 疫病의 주된 원인임을 기술한 것이다. 물론 『東醫寶鑑·瘟疫門』에서도 ‘時氣’, ‘時行病’, ‘天行’ 등을 언급하며 기후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新纂辟瘟方』에서는 구체적인 運氣 이론을 인용하여 그 논지의 타당성을 더하고 있고, 특히 火運을 언급하며 온열성 외부 요인을 강조하였다.<sup>12)</sup>

또 『黃帝內經』을 인용하여 ‘寒’을 병인으로 기술하는 부분에서 『東醫寶鑑·瘟疫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의 伏氣 관련 기사 비교

『東醫寶鑑·瘟疫門』	『新纂辟瘟方』
內經曰, 冬傷於寒,	冬傷於寒, 春必病溫.

春必溫病. ○ 冬不藏精者, 春必病溫. [內經] 「瘟疫之因」	又曰冬不藏精者, 春必病溫. [內經] 「瘟疫各有所因」
溫熱病者, 夏至前發爲溫病, 夏至後發爲熱病, 謂之伏氣. 傷寒所謂冬傷於寒春必病溫, 是也. [丹心] 「瘟疫治法」	溫熱病者, 春發者爲溫病, 夏發者爲熱病, 皆瘟疫之類也. [丹心] 「瘟疫有溫有熱」

『東醫寶鑑·瘟疫門』에서는 ‘冬傷於寒, 春必溫病’의 의미를 伏氣溫病의 맥락으로 쓰고 있으며, 溫熱病을 ‘夏至前發爲溫病, 夏至後發爲熱病’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은 伏氣라고 명시하고 있다. 『新纂辟瘟方』에서도 ‘冬傷於寒, 春必病溫’을 언급했지만 그 맥락이 伏氣溫病人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瘟疫各有所因’이라는 기사 제목처럼 瘟疫의 요인 중 하나를 소개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溫熱病을 ‘春發者爲溫病, 夏發者爲熱病’이라고 설명하며 瘟疫의 종류라고 기술하였고, ‘瘟疫有溫有熱’이라는 기사 제목처럼 瘟疫의 온열성 요인을 논하고 있다. 『東醫寶鑑·瘟疫門』에서 인용한 것이 확실한데 봄여름에 발생하는 溫熱病에 대한 기전을 설명함에 있어 굳이 伏氣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모두 瘟疫의 종류라고 기술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변화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四時不節之氣, 天地不正之氣를 비롯한 원한, 위생문제 등의 다양한 병인 인식은 대부분 『東醫寶鑑·瘟疫門』을 그대로 채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술을 중심으로 볼 때, 『新纂辟瘟方』의 瘟疫 病因 인식은 외부의 기후적 요인, 특히 온열성 요인을 『東醫寶鑑·瘟疫門』에 비해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火가 치성해서 疫病이 유행할 수 있는 시기를 運氣이론으로 추산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3. 『新纂辟瘟方』의 瘟疫 診斷

瘟疫의 진단에 관한 내용은 ‘瘟疫脈’, ‘瘟疫形證’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瘟疫門』 ‘脈法’, ‘瘟疫形證’의 기사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인

11)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25.

12) 기술의 순서가 내용의 중요도를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東醫寶鑑·瘟疫門』의 내용을 재정리하면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서두에 기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강조의 의미로 인지해도 논리적으로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의  
診斷 관련 기사 비교

『東醫寶鑑·瘟疫門』	『新纂辟瘟方』
<p>尺膚熱甚，脈盛躁者，病溫也。【靈樞】○時疫之脈無定據，隨時審思乃得，未可輕議。【得效】○陰陽俱盛，病熱之極，浮之而滑，沈之散澁。惟有溫病，脈散諸經，各隨所在，不可指名。【脈訣】○陽脈濡弱，陰脈弦緊，更遇溫氣，變爲瘟疫。○溫病二三日，體熱腹滿頭痛，食飲如故，脈直而疾，八日死。○溫病四五日，頭痛腹滿而吐，脈來細而強，十二日死。○溫病八九日，頭身不痛，目不赤，色不變而反利，脈來澁，按之不足，舉時大，心下堅，十七日死。○溫病汗不出，出不至足者，死。○厥逆汗自出，脈堅強急者生，虛軟者死。【脈法】○溫病穰穰大熱，脈細小者，死。○溫病下利，腹中痛甚者，死。【醫鑑】○熱病得汗，脈安靜者生，躁急者死。及大熱不去者，亦死。○熱病七八日，當汗反不得汗，脈絕者，死。【醫鑑】○熱病脈靜，汗已出，脈盛，一逆也，死不治。【靈樞】 「脈法」</p>	<p>尺膚熱，脈盛躁者，病溫也。【靈樞】○陰陽俱盛，病熱之極，浮之而滑，沈之散澁。惟有溫病，脈散諸經，各隨所在，不可指名。【脈訣】○時疫之脈，無定據，隨時審思乃得，未可輕議。【得效】 「瘟疫脈」</p>
<p>冬合寒反暖，春發溫疫。其證，發熱，腰痛強急，腳縮不伸，脘中欲折，目中生花，或濇濇增寒復熱。○春合暖反涼，夏發燥疫。其證，身體戰掉不能自禁，或內熱口乾，舌破咽塞聲嘶。○夏合熱反寒，秋發寒疫。其證，頭重頸直，皮肉強痺，或蘊而結核起於咽喉頸項之側，</p>	<p>冬合寒反暖，春發溫疫。其證，發熱，腰痛強急，腳縮不伸，脘中欲折，目中生花，或濇濇增寒復熱。○春合暖反涼，夏發燥疫。其證，身體戰掉不能自禁，或內熱口乾，舌破咽塞聲嘶。○夏合熱反寒，秋發寒疫。其證，頭重頸直，皮肉強痺，或蘊而結核起於咽喉頸</p>

<p>布熱毒於皮膚分肉之中。○秋合涼反陰雨，冬發濕疫。其證，乍寒乍熱，損傷肺氣，暴嗽嘔逆，或體熱發癍，喘咳引氣。【三因】○感四時不正之氣，使人痰盛，煩熱頭痛身疼，增寒壯熱，項強睛疼，或飲食如常，起居依舊，甚至聲啞，或赤眼口瘡，大小顯腫喉痺，咳嗽稠粘，噴嚏。【醫鑑】 「瘟疫形證」</p>	<p>項之側。○秋合涼反陰雨，冬發濕疫。其證，乍寒乍熱，暴嗽嘔逆，或體熱發癍，喘咳引氣。【三因】○感四時不正之氣，使人痰盛，煩熱頭痛身疼，增寒壯熱，項強睛疼，甚至聲啞，或赤眼口瘡，顯腫喉痺，咳嗽噴嚏。【醫鑑】 「瘟疫形證」</p>
---	---

용하고 있다.

『新纂辟瘟方』에서 瘟疫의 脈象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긴 했지만, 정확히 지목해서 명명할 수 없거나 일정치 않아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으로 기술하였고, 『東醫寶鑑·瘟疫門』의 장황한 脈象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한데, 첫째는 실용성 차원에서이고 둘째는 중요도 차원에서이다. 즉, 정교한 脈象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 당장 유행할지 모르는 瘟疫에 대비하여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또는 정확히 지목하기 힘든 瘟疫의 脈이기에 삭제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두 추측 중 어느 한 쪽이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맞거나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新纂辟瘟方』이 瘟疫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간행한 서적이므로서 정확하고도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실으려 했다는 가정 하에서이다.

또한 ‘瘟疫形證’을 통해 四時에 맞지 않는 기후에 나타날 수 있는 疫病을 溫疫, 燥疫, 寒疫, 濕疫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증상을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四時不正之氣를 感受했을 때의 일반적인 증상도 기술하고 있다. 이 또한 『東醫寶鑑·瘟疫門』의 ‘瘟疫形證’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인용시 삭제한 부분에서 일부 형용어를 제외하면 ‘布熱毒於皮膚分肉之中’, ‘損傷肺氣’와 같은 표현은 해당 병증의 病機를 표현한 부분이다. 이 역시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당장 瘟疫을 진단하는데에 참고하기 위한 병증 위주의 기술을 위해 빠졌

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新纂辟瘟方』에서는 『東醫寶鑑·瘟疫門』의 진단 관련 기사를 재구성하였고, 삭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논해보자면 瘟疫의 脈象, 病證 정보를 기술함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곧장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 4. 『新纂辟瘟方』의 瘟疫 治法

앞서 [표 1]에서 보이듯이 『新纂辟瘟方』에서의 瘟疫治法 내용은 『東醫寶鑑·瘟疫門』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東醫寶鑑·瘟疫門』의 ‘瘟疫治法’ 기사에 나오는 처방들을 세분화된 『新纂辟瘟方』의 편제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東醫寶鑑·瘟疫門』의 ‘單方’에 나오는 單方 및 처방 또한 새로운 편제에 따라 나누어 쓰고 있다.<sup>13)</sup>

먼저 ‘瘟疫治法’에서는 앞서 기술한 溫疫, 燥疫, 寒疫, 濕疫의 분류에 따라 각각에 쓰는 처방을 『東醫寶鑑·瘟疫門』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sup>14)</sup> 그리고 그 외에 『得效方』을 인용하여 처방을 더 추가하였다.<sup>15)</sup>

[표 6] 『新纂辟瘟方』에 첨가된 溫疫, 燥疫, 寒疫, 濕疫의 처방

종류	『東醫寶鑑·瘟疫門』	『新纂辟瘟方』에서 추가한 처방
溫疫	葛根解肌湯	加味敗毒散
燥疫	調中湯	大柴胡湯
寒疫	蒼朮白虎湯	五積散
濕疫	柑桔湯	五苓散

13) 東醫寶鑑에는 각 질병문 말미에 ‘單方’을 붙여두었다. 이는 의술의 시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백성들이 구하기 쉬운 재료로 치료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한 ‘單方’을 좀 더 세분화된 편제에 따라 구성했다는 것은 구하기 쉬운 재료를 좀 더 적합한 곳에 쓰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新纂辟瘟方이 가진 공공의료목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東醫寶鑑·瘟疫門』에서는 疫病을 치료하는 법칙으로 補法, 散法, 降法을 제시했고,<sup>16)</sup> 傷寒과는 다른 治法을 써야 한다면서 少陽, 陽明 두 經의 약을 쓸 것을 언급했으나,<sup>17)</sup> 『新纂辟瘟方』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다. 대신 『東醫寶鑑·瘟疫門』에서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에 따라 荊防敗毒散, 小柴胡湯, 大柴胡湯의 세 처방을 제시하던 것을 새롭게 범주화하여 처방을 더 보강하고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에 따른 形證도 기술하였다.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에 대해 범주화하며 각각의 治法으로 汗法, 和解法, 下法을 제시하였는데, 물론 그 치료가 전통적인 傷寒의 治法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形證과 治法이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다.<sup>18)</sup> 따라서 熱의 輕重에 따른 治法의 범주화로

[표 7] 『新纂辟瘟方』의 表裏에 따른 形證 및 처방

表裏 구분	表裏에 따른 形證	처방
表證	瘟疫初得二三日, 頭痛身疼, 或寒或熱, 此邪氣在表, 宜汗之.	九味羌活湯, 十神湯, 聖散子, 香蘇散, 十味芍蘇散, 加味敗毒散, 柴胡升麻湯, 清熱解肌湯, 桃葉湯, 葱白粥, 芥菜子法
半表半裏證	瘟疫四五日, 頭身痛, 壯熱煩渴, 舌黃, 尿赤, 或衄.	小柴胡湯, 蒼朮白虎湯, 竹葉石膏湯, 清熱解毒散, 犀角地黃湯合小柴胡湯
裏證	瘟疫六七日, 目赤, 舌黑, 發狂譫妄, 大渴, 是熱毒入裏極盛.	大柴胡湯, 茵陳丸, 黑奴丸, 九味清心元, 三黃石膏湯, 人糞汁, 豬糞汁, 臘雪水, 地龍汁, 藍葉汁, 水中細苔, 竹瀝, 月經水, 菜豆粥, 水漬法

14) 許浚 지음,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450. “春發溫疫, 宜葛根解肌湯. 夏發燥疫, 宜調中湯. 秋發寒疫, 宜蒼朮白虎湯. 冬發濕疫, 宜柑桔湯. [入門]”

서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의 전제가 각기 瘟疫初得二三日, 瘟疫四五日, 瘟疫六七日인 것으로 볼 때에도 瘟疫이 發病한 뒤 시간의 경과에 따라 病情이 깊어 진다는 인식 하에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며칠 사이에 급격히 변하는 瘟疫의 병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발병 일수에 따라 처방을 응용하도록 처방을 구분한 것이다.

끝으로 ‘瘟疫發黃’에서는 『東醫寶鑑·黃疸門』 중에 疫癘로 인한 發黃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瘟疫通治’에는 일반적으로 두루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을 정리하였다.<sup>19)</sup>

- 15)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28. “春發溫疫, 宜加味敗毒散, 夏發燥疫, 宜大柴胡湯, 秋發寒疫, 宜五積散, 冬發濕疫, 宜五苓散. [得效]”
- 16) 許浚 지음,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450. “衆人病一般者, 是天行時疫, 治有三法, 宜補宜散宜降. [丹心]”, “宜補宜散宜降, 用人中黃丸. [入門]”
- 17) 許浚 지음,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450. “治法, 切不可作傷寒正治, 而大汗天下. 但當從乎中治, 而用少陽陽明二經藥. 少陽小柴胡湯, 陽明升麻葛根湯, 加減治之.”  
新纂辟瘟方에서 少陽, 陽明의 藥을 써야 한다는 강령을 삭제하였지만, 東醫寶鑑에서 예로든 小柴胡湯과 升麻葛根湯(十神湯의 구성방)은 처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 18) 전통적인 傷寒의 治法이란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에 각각 汗法, 和解法, 下法의 大綱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상한의 半表半裏證은 ‘寒熱往來’와 같은 지표증상을 포함하고 있기 마련인데, 新纂辟瘟方에서 언급한 半表半裏證에는 ‘頭身痛’과 같은 表症과 ‘壯熱煩渴’과 같은 裏症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전통적인 상한의 下法은 말 그대로 瀉下시키는 처방을 쓰는데, 新纂辟瘟方에서 언급한 裏證에 특별히 ‘大便秘結’과 같은 증상이 없을뿐더러 九味清心元(蒲黃, 犀角, 朱砂, 黃芩, 牛黃, 羚羊角, 麝香, 龍腦, 雄黃), 三黃石膏湯(石膏, 黃芩, 黃連, 黃柏, 梔子, 麻黃, 香豉) 등의 처방 구성만 보더라도 瀉下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19) 東醫寶鑑에는 內景·外形·雜病篇 등의 각 병증문에 ‘痛治’ 항목이 상당수 있다. 직역하면 ‘두루 치료한다’는 뜻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이 또한 ‘單方’과 같이 공공의료목적으로서 의의가 있다. 東醫寶鑑·瘟疫門에서 단지 ‘瘟疫治法’에 몽땅그려 제시한 처방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 그 외에 通治方으로서의 처방을 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瘟疫通治’에서 제시한 처방들(五瘟丹, 如意丹, 人中黃丸, 茵陳丸, 神授太乙散)의 劑型을 보면 모두 丹, 丸, 散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배급 및 휴대에 용이한 것으로서 이 또한 공공의료목적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

종합해보면 『新纂辟瘟方』에서는 溫疫, 燥疫, 寒疫, 濕疫의 분류에 따라 처방을 기술하되 『東醫寶鑑·瘟疫門』에서 언급한 처방 외에 더 보충하였고, 瘟疫의 대략적인 발병 일수에 따라 表證, 半表半裏證, 裏證으로 병정을 나누고 그에 따른 처방을 분류하였다. 이는 四時에 따른 기준, 대략적인 발병 일수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瘟疫을 구체적으로 辨證하여 치료하기 보다는 時期에 따른 病情을 대략적으로 분류하여 ‘瘟疫’이라는 급성 전염성 질환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東醫寶鑑·瘟疫門』의 ‘單方’을 각 편제에 나누어 넣고 ‘瘟疫通治’라는 항목을 따로 만든 것으로 보아 공공의료목적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추측해본다.

## 5. 『新纂辟瘟方』의 瘟疫 특수 증후

『新纂辟瘟方』에서는 瘟疫의 특수 증후로서 ‘大頭瘟’과 ‘瘧疫’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그 병증 및 치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瘟疫門』에서 ‘大頭瘟證’, ‘大頭瘟治法’, ‘瘧疫’의 기사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인용하고 있다.

[표 8] 『東醫寶鑑·瘟疫門』과 『新纂辟瘟方』의 大頭瘟 관련 기사 비교

『東醫寶鑑·瘟疫門』	『新纂辟瘟方』
大頭病者, 感天地四時非節瘟疫之氣所着以成此疾. 至於潰裂膿出, 而又染他人, 所以謂之疫癘. 大抵足陽明邪熱太甚, 資實少陽相火爲熾, 濕熱爲腫, 木盛爲痛, 多在少陽, 或在陽明. 陽明爲邪, 首大腫. 少陽爲邪, 出於耳前後. [海藏] ○ 大頭病者, 頭痛腫大如斗是也. 大率多是天行時疫病也. [綱目] ○ 天行一種, 名曰大頭病, 俗呼爲狸頭瘟. 從耳前後腫起, 名曰蝦蟆瘟. 從頤頰腫起, 名曰鷓鴣瘟. 甚爲凶惡, 染此者十死八九, 宜推運氣治之. [正傳] ○ 大頭瘟, 亦謂之時毒. 初發狀如傷	大頭病者, 感天地四時非節瘟疫之氣所着以成此疾. 至於潰裂膿出, 而又染他人, 所以謂之疫癘. [海藏] ○ 大頭病者, 頭痛腫大如斗是也. 大率多是天行時疫病也. [綱目] ○ 天行一種, 名曰大頭病, 俗呼爲狸頭瘟. 從耳前後腫起, 各曰蝦蟆瘟. 從頤頰腫起, 名曰鷓

라 추측해본다.

<p>驚瘟。甚爲凶惡，染此者十死八九，宜推運氣治之。[正傳] ○ 大頭腫，又名雷頭風。其證頭面腫痛疔瘡，甚即咽喉堵塞，害人最速，冬溫後多有此病。[入門] ○ 大頭瘟，亦謂之時毒。初發狀如傷寒，五七日之間乃能殺人。其候發於鼻面耳項咽喉，赤腫無頭，或結核有根，令人增寒發熱，頭痛肢體痛，甚者恍惚不寧，咽喉閉塞。[精義]</p> <p style="text-align: center;">「大頭瘟證」</p> <p>兩目鼻面腫者，陽明也。耳前後并額角腫者，少陽也。腦後項下腫起者，太陽也。表證多者，荊防敗毒散，裏證多者，防風通聖散加惡實玄參，俱用酒炒，微微下之。[入門] ○ 服藥俱仰臥，使藥氣上行。[入門] ○ 東垣普濟消毒飲子最妙，人中黃丸亦妙。[入門] ○ 治法，當先緩而後急。先緩者，邪見於無形之處，至高之分，當用緩緩徐徐服之，寒藥則酒浸酒炒皆是也。後急者，邪氣入於中，有形質之所，此爲客邪，當急去之。[海藏] ○ 大頭病，此熱氣在高巔之上，切勿用降藥，宜羌活，酒芩，酒大黃。[丹心] ○ 大頭瘟，俗謂之時毒。常於鼻內搗通氣散，取十餘嚏作效。若搗藥不嚏者，不可治也。如嚏出膿血者，治之必愈。每日用嚏藥三五次，以泄毒氣，此是良法。左右看病之人，日日用嚏藥嚏之，必不傳染。[精義] ○ 經三四日不解者，宜荊防敗毒散，至七八日大小便通利，頭面腫起高赤者，宜托裏消毒散，兼鍼砭出血，泄其毒氣。</p>	<p>寒，五七日之間乃能殺人。其候發於鼻面，耳項，咽喉，赤腫無頭，或結核有根，令人增寒發熱，頭痛肢體痛，甚者恍惚不寧，咽喉閉塞。[精義] ○ 東垣普濟消毒飲子最妙，人中黃丸亦妙。[入門] ○ 兼砭刺出血，泄其毒氣。鍼法見下。又用嚏法。[精義] ○ 大頭瘟，宜用既濟解毒湯，芩連消毒飲，牛蒡芩連湯，漏蘆散，二黃湯，殭黃丸，加味殭黃丸，二聖救苦丸，清涼救苦散。</p> <p style="text-align: center;">「大頭瘟」</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嚏法</p> <p>大頭瘟，俗謂之時毒。常於鼻內搗通氣散，取十餘嚏作效。若搗藥不嚏者，不可治也。如嚏出膿血者，治之必愈。每日用嚏藥三五次，以泄毒氣，最是良法。左右看病之人，日日用嚏藥嚏之，必不傳染。[精義] 「大頭瘟」</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	--

<p>十日後，不治自愈。若五日已前，精神昏亂，咽喉閉塞，語聲不出，頭面大腫，食不知味者，必死。[精義] ○ 大頭瘟，宜用既濟解毒湯，芩連消毒飲，牛蒡芩連湯，漏蘆散，二黃湯，消毒丸，殭黃丸，二聖救苦丸，加味殭黃丸，清涼救苦散，通氣散。[諸方]</p> <p style="text-align: center;">「大頭瘟治法」</p>	<p>○ 大頭瘟，五日已前，精神昏亂，咽喉閉塞，語聲不出，頭面大腫，食不知味者，必死。[精義] 「不治證」</p>
---	---

우선 ‘大頭瘟’ 관련 기사 중 『新纂辟瘟方』에서 삭제한 부분을 살펴보면, 少陽, 陽明, 太陽을 구분하거나 表裏를 구분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辨證하는 내용, 치료원칙 및 용약에 관한 내용 등이다. 충분히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기술들이지만 『新纂辟瘟方』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한 채 大頭瘟의 形證 및 처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또한 앞서 診斷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세세한 辨證이나 용약 원리와 같은 의학지식보다 당장 쓸 수 있는 증상, 처방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瘴疫’ 관련 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9]에서 보이듯이 일부 형용어를 제외하면 ‘此毒氣從口鼻入內也’, ‘皆由敗血瘀於心, 毒涎聚於脾所致’와 같이 瘴疫의 病機를 설명하는 내용이 『新纂辟瘟方』에서 삭제되었다. 病機에 대해 기술하는 대신 ‘名爲啞瘴’과 같은 표현으로 병증을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新纂辟瘟方』에서 ‘大頭瘟’, ‘瘴疫’과 같은

[표 9] 『東醫寶鑑·瘴疫門』과 『新纂辟瘟方』의 瘴疫 관련 기사 비교

『東醫寶鑑·瘴疫門』	『新纂辟瘟方』
<p>嶺南春秋時月，人感山嵐瘴霧毒氣，發爲瘧瘧寒熱，此毒氣從口鼻入內也。宜升麻蒼朮湯。[節齋] ○ 南方疫癘挾嵐瘴溪源蒸毒之氣，其狀熱乘上焦，病欲來時，令人迷困，甚則發躁狂妄，亦有啞而不能言者，皆由敗血瘀於心，毒涎</p>	<p>嶺南人感山嵐瘴霧毒氣，發爲瘧疫。宜升麻蒼朮湯，三仙湯，太無神朮散。○ 南方疫癘挾嵐瘴溪源蒸毒之氣，其狀熱乘上焦，令人迷困，甚則發躁狂妄，亦有啞而不能言，名爲啞瘴。宜加味柴胡湯。[醫鑑] 「瘴疫」</p>

聚於脾所致。宜加味柴胡湯。【醫鑑】○瘧疫宜三仙湯，太無神尤散。【諸方】「瘧疫」	
---	--

瘧疫의 특수 증후에 대해 기술할 때 구체적인 의학 지식은 배제하고 증상, 처방 위주의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新纂辟瘧方』의 瘧疫 豫防 및 鍼法

『新纂辟瘧方』에서 瘧疫의 豫防에 관한 내용을 ‘瘧疫禳法’, ‘瘧疫辟法’, ‘不傳染法’의 항목에 기술하였다. 이는 『東醫寶鑑』의 ‘禳法’, ‘辟瘧疫預防法’, ‘不傳染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瘧疫禳法’에서는 역병을 막는 주술적 요법을 기술하면서 『東醫寶鑑』 외에 『簡易辟瘧方』의 내용 또한 기술하고 있다.<sup>20)</sup> ‘瘧疫辟法’에서는 역병을 예방하는 방법 및 처방을 제시하였으며 『東醫寶鑑』의 내용을 거의 인용하되 『東醫寶鑑·瘧疫門』의 ‘單方’ 항목의 단방을 인용하였고, 그 외에 『簡易辟瘧方』과 같은 기존의 醫書, 辟瘧書 및 민간의 처방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sup>21)</sup> ‘不傳染法’은 『東醫寶鑑·瘧疫門』을 취사 인용하였고, 거기에 ‘蒸衣法’을 추가하여 역병에 대한 위생적인 예방법을 기술하고 있다.<sup>22)</sup>

‘鍼法’에서는 『東醫寶鑑·瘧疫門』에 『黃帝內經靈樞』의 熱病五十九刺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덧붙여 앞서 ‘大頭瘧’에서 大頭瘧의 치법으로 제시했던 ‘砭刺出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

술하고 있다.

따라서 『新纂辟瘧方』의 瘧疫 豫防 및 鍼法 관련 내용은 『東醫寶鑑·瘧疫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존의 醫書나 민간의 처방을 보충하여 기술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 7. 『新纂辟瘧方』의 瘧疫 不治證 및 禁忌

『新纂辟瘧方』의 ‘不治證’에는 瘧疫과 大頭瘧의 치료하기 힘든 증후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瘧疫門』의 ‘瘧疫熱病不治證’과 ‘大頭瘧治法’에 나온 내용으로서 『東醫寶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한 ‘禁忌’는 『東醫寶鑑·瘧疫門』에는 없는 항목으로서, 瘧疫, 熱病을 앓고 난 뒤의 주의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내용<sup>23)</sup>은 『東醫寶鑑·寒門』의 ‘傷寒十勸’, ‘傷寒戒忌’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며,<sup>24)</sup> 葷과 葵菜를 먹지 말라는 내용<sup>25)</sup>은 『東醫寶鑑·瘧疫門』의 ‘單方’에 나온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sup>26)</sup>

따라서 ‘不治證’은 『東醫寶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禁忌’는 새로이 항목을 만들어 기존의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 Ⅲ. 考 索

지금까지 『新纂辟瘧方』을 『東醫寶鑑·瘧疫門』과 대조해가며 그 차이점으로 인해 부각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서적의 상당한 유사성 때문에 어찌보면 『新纂辟瘧方』이 『東醫寶鑑·瘧疫門』에서 큰 변화를 준

20)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p.35-38.

21) ‘瘧疫辟法’에 인용된 虎頭, 雄黃, 菖蒲酒, 安息香, 爆竹, 塚上土, 艾人, 千金木은 東醫寶鑑·瘧疫門에 없는 단방이다. 이 중 雄黃, 安息香은 東醫寶鑑·邪祟門의 ‘單方’에 보이고, 虎頭, 菖蒲酒는 東醫寶鑑·湯液篇에 그 용례가 보이고, 塚上土는 本草綱目에 그 용례가 보인다. 또한 雄黃, 菖蒲酒, 安息香, 爆竹, 艾人은 簡易辟瘧方에 보인다.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1, 42, 43, 47.) 千金木은 그 이전의 辟瘧書(簡易辟瘧方, 分門瘧疫易解方)에는 보이지 않으나 新纂辟瘧方 이후의 辟瘧書인 辟瘧新方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아 新纂辟瘧方을 집필하면서 민간에 쓰이는 단방을 새로이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22)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33.

23)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52. “溫熱病, 熱退後百日內, 犯房室者, 死. 死時, 必吐舌數寸而死. ○ 飲酒, 必再發. 食羊肉, 尤甚. [仲景]”

24) 許浚 지음,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34. “傷寒病初差, 不可過飽 及飲酒食羊肉 行房事”, “差後百日內, 氣體未復, 犯房室者, 死”

25)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52, 153. “○ 溫病, 勿食葷, 食者, 多死. ○ 天行病後, 食葵菜, 頓喪明. [本草]”

26) 東醫寶鑑·瘧疫門의 ‘單方’에는 瘧疫을 치료하는 單方도 있지만 먹어서는 안되는 單方도 수록하고 있다. 이를 新纂辟瘧方에서 ‘禁忌’ 항목에 기술한 것이다.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닥칠 지도 모르는 瘟疫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서적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흔적이 보이고, 瘟疫의 病因에 있어 변화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게다가 예견한대로 『新纂辟瘟方』이 출간된 해 봄, 여름에 疫病이 유행한다. 그런데 그 疫病的 유행 이후 許浚은 『辟疫神方』을 집필하였다. 『辟疫神方』은 疫病 중에서도 특히 ‘疹’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다루고 있는 서적으로서, 이는 당시 유행했던 疫病的 양상을 보고 간행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 본문에도 당시 유행했던 ‘唐毒症’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新纂辟瘟方』이 변화한 瘟疫 病因 인식을 바탕으로 瘟疫의 유행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서적이었으나 당시 유행한 병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부족했기 때문에, 『辟疫神方』으로 그 부족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新纂辟瘟方』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新纂辟瘟方』 이후에 간행된 『辟瘟新方』과 같은 辟疫書가 『新纂辟瘟方』의 구성을 따르는 것으로만 보아도 『新纂辟瘟方』이 한국 瘟疫 연구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28)</sup>

따라서 한국 瘟疫 연구에 있어 『新纂辟瘟方』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辟疫神方』과 같은 辟疫書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結 論

편제 및 처방을 비교해봤을 때 『新纂辟瘟方』이 『東醫寶鑑』을 기반으로 출간된 것은 명백하다. 그 전

제 하에 『新纂辟瘟方』이 『東醫寶鑑·瘟疫門』과 차이는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新纂辟瘟方』의 瘟疫 病因 인식은 외부의 기후적 요인, 특히 온열성 요인을 『東醫寶鑑·瘟疫門』에 비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하에 火가 치성해서 疫病이 유행할 수 있는 시기를 運氣이론으로 추산하여 그에 대비코자 하였다.

또한 瘟疫의 脈象, 病證 및 瘟疫의 특수 증후 정보를 기술함에 있어서 『東醫寶鑑·瘟疫門』을 인용하되, 의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곧장 쓸 수 있는 내용 중심의 구성을 이루었다.

瘟疫의 治法에 있어서는 瘟疫를 구체적으로 辨證하여 치료하기보다 四時, 대략적인 발병 일수와 같이 時期에 따라 病情을 대략적으로 분류하여 ‘瘟疫’이라는 급성 전염성 질환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또한 『東醫寶鑑·瘟疫門』 ‘單方’의 정보를 각 편제에 나누어 넣고 ‘瘟疫通治’라는 항목을 따로 만든 것은 공공의료목적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瘟疫의 豫防, 鍼法 및 不治證 관련 내용은 『東醫寶鑑·瘟疫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존의 醫書나 민간의 처방을 보충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瘟疫의 禁忌에 관한 내용은 새로이 항목을 만들어 기존의 정보를 재구성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新纂辟瘟方』은 기존보다 일부 변화된 瘟疫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기존 의서 및 민간 처방을 보충하여 그 전문성을 높였다. 동시에 의학적, 학술적 정보를 담기보다 현실적인 활용도를 높였고, 널리 쓸 수 있는 공공의료목적에 띄고 있다.

27)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57. “臣 歷考古今方書, 無唐毒症之病名, 又無治唐毒症之方法, 蓋罕世之酷疾也. 今年自春徂夏, 疫癘盛行, 自夏以後, 毒症並起, 人多死亡, 蓋癸年屬火運故也.”

28) 辟瘟新方은 효종 4년(1653년) 간행된 서적으로, ‘瘟疫表證宜汗’, ‘瘟疫半表半裏宜和解’, ‘瘟疫裏證宜下’와 같이 新纂辟瘟方に 처음으로 나오는 편제를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新纂辟瘟方과 거의 유사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벽은신방 해제.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050\\_Z\\_001&DataName=%E8%BE%9F%E7%98%9F%E6%96%B0%E6%96%B9&ssot=](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050_Z_001&DataName=%E8%BE%9F%E7%98%9F%E6%96%B0%E6%96%B9&ssot=))

## V. 參考文獻

### <논문>

1. 陳柱杓. 劉完素의 火熱論이 許浚의 瘟疫治療法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辟疫醫書를 통해 살펴본 瘟疫學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6. 19(2).

### <단행본>

1.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8).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47. pp.35-38, 41-43, 115-154.
2. 許浚 지음,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948, 1134, 1420. pp.1448-1462.
3. 한국한의학연구원. 허준의학전서6, 신찬벽온방 해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9. p.3.
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3.

### <전자매체>

1. 국사편찬위원회. 光海君日記. 61卷, 4年.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oa\\_10412022\\_001&mTree=0&inResult=0&indextype=1](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oa_10412022_001&mTree=0&inResult=0&indextype=1)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벽온신방 해제.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050\\_Z\\_001&DataName=%E8%B E%9F%E7%98%9F%E6%96%B0%E6%96%B9&ssot=](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050_Z_001&DataName=%E8%B E%9F%E7%98%9F%E6%96%B0%E6%96%B9&ssot=)